

# 재난의 설화적 상상력과 희생 시스템의 타자성\*

- 인주(人柱)설화를 중심으로 -

김영미(조선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 〈 목 차 〉

- |                         |                             |
|-------------------------|-----------------------------|
| 1. 서론                   | 3. 재난의 설화적 상상력과 희생에로의 방향 전환 |
| 2. 인주설화의 자료 개관 및 재난 모티프 | 3.1. 설화적 상상력의 존재들           |
| 2.1. 인주설화의 서사 단락        | 3.2. 희생에로의 방향 전환            |
| 2.2. 설화 속에 함유된 '재난' 모티프 | 4. 희생 시스템의 타자성과 폭력성         |
|                         | 5. 맺음말                      |

## 국문초록

인주(人柱)설화는 종, 집, 제방 등의 축조물을 만들 때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자 살아있는 사람을 기둥으로 써서 성공적으로 완성했다는 이야기이다. 본고에서는 인주설화가 지니고 있는 '재난 서사'에 주목하여 재난 모티프를 찾아보고 '재난'에 대한 설화적 상상력과 희생의 의미를 탐구했다.

먼저 세 유형의 제방 축조형, 집 건축형, 종 주조형 인주설화 속에 내재된 '재난' 모티프를 찾아보고 이야기를 관통하는 마스터플롯을 정리했다. 인주설화는 '축조물 만들기의 계속적인 실패[재난 발생]-인주 방법 실행-축조물의 성공적 완성[재난 극복]'의 플롯을 공유하고 있는데 각 유형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심층적 의미맥락은 차이가 있다. 재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방 축조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1059888).

형은 자연재난이 어떻게 사회재난의 폭력성을 배태하게 되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제방 축조형은 홍수라는 ‘자연재난’이 바탕이 되지만 그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재난’으로 변질되는 재난의 이중적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집 건축형은 애초에 인간이 만든 폭력을 상상한 ‘인적 재난’에 대한 이야기이며 종 주조형은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지 않은 시대에 종교를 통해 국가적 재난을 해결하고자 한 ‘사회재난’에 대한 상상력의 일단을 보여준다.

이때 상상력은 설화적으로 포진된다. 축조물이 계속 무너지는 것은 신이나 용 같은 어떤 알 수 없는 힘의 작용 때문이라는 인식,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써야 한다는 것, 희생양을 쓰도록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예지적·예언적 존재가 등장하는 것이 모두 설화적이다. 이는 재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신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있는 설화적 상상력의 장치들이다. 결국 인주설화는 자연적·인적·사회적 재난을 복합적으로 섞어 설화적으로 형상화한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런 설화적 상상력 속에는 희생 논리의 전형이 숨겨져 있다. 인주로 희생되는 모든 인물은 공동체의 내부인이 아니고 외지에서 온 스님이거나 처녀, 자기 결정권이 없는 어린아이들로, 공동체 내부의 어떤 사회적 관계도 갖지 못한 타자적 인물들이다. 공동체의 이익이 타자들을 희생시켜 산출되고 유지되는 폭력적 ‘희생 시스템’인 것이다. 공동체 내부인들은 이러한 타자성과 폭력성을 은폐하기 위해 희생의 가치를 찬미하고, 때로는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며 희생을 강제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도 한다.

본고는 재난 서사 분석을 통해 공동체의 안녕이라는 미명 아래 혹시 우리도 희생의 타자성과 폭력성을 은폐하고 있지 않은지 코로나 19 같은 작금의 ‘재난 현실’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주제어 : 인주(人柱), 인주설화, 제방 축조형, 집 건축형, 종 주조형, 재난, 설화적 상상력, 희생 시스템, 타자성, 폭력성, 은폐

# 1. 서론

재난이란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지진, 홍수, 가뭄, 태풍 같은 자연재난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화재,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과 같은 인적 재난은 물론 전염병, 금융위기, 통신 마비, 테러, 전쟁 같은 사회적 재난들도 급증하고 있으며<sup>1)</sup> 그 양상도 자연적·인적·사회적인 요소가 섞여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연적이든 사회적이든, 재난은 문명이 시작된 이후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존재해왔는데 다만 시대와 사회에 따라 재난에 대한 인식과 대응 양상은 변화해왔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할 때 인간은 이를 시대·사회적 각도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재난을 문학적 세계에서 수용하여 재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재난을 문학의 프리즘으로 본 가장 고전적이고 민중적인 것이 설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신공희(人身供犧)설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재난 서사’<sup>2)</sup>의 관점에서 설화를 다시 읽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신공희설화의 하위분류라고 할 수 있는 인주(人柱)설화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그 속에 나타나는 재난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 1) 재난의 유형은 시대와 나라,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기도 한다. 그 중에서 본고는 재난을 자연재난,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나눈 분류체계를 따랐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성일의 「고위험사회가 초래한 한국형 재난의 발생과 기원」(『문학/과학』 72호, 2012, 83-84면) 참조. 참고로 현행 우리나라 「재난안전법」(2020.06.09. 기준)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2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인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사회재난’으로 통합한 것이다. 하지만 재난 유형에 관련된 용어 사용 추이를 보면 여전히 ‘인재’나 ‘인적 재난’ 사용 빈도가 많은 것으로 보아 ‘사람이 일으키는 혹은 사람의 잘못으로 생긴 재난’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
- 2) ‘재난 서사’라는 말은 ‘재난’의 모티프가 주요 소재나 주제를 이루는 경우, 혹은 ‘재난의 발생과 극복’이 주요 서사의 틀로 작동되고 있는 서사물을 광범위하게 일컫는 말로 통칭한다.

인신공희설화는 어떤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신(人身), 즉 사람을 희생양을 바치는 이야기군을 유형화한 명칭으로, 인신희생설화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인신공희설화에서 드러나는 ‘문제적 상황’은 대부분 ‘재난 상황’인 경우가 많다.<sup>3)</sup> 따라서 ‘재난’을 중심으로 인신공희설화의 내용과 서사 구조를 다시 정리하면, 인신공희설화는 기본적으로 재난의 발생을 경험 혹은 예견하고 그것을 막거나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재난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희생을 바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사 구조적인 측면에서 인신공희설화는 보통 어떤 대상에 의해 재난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 대상에게 인간을 제물로 바치면 재난이 사라진다는 플롯을 지니고 있다. 즉 ‘재난 발생-인신공희(人身供犧) 실시-재난 소멸-(일상생활로의 복귀)’라는 플롯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인신공희설화가 갖는 이러한 재난 서사 구조에 관심을 갖고 재난 상황에서 많이 등장하는 ‘희생’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그런데 인신희생설화로 분류할 수 있는 설화들이 양적으로 상당히 많아서 본고에서는 그 하위분류인 인주(人柱)설화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려고 한다.<sup>4)</sup> 인주설화는 집이나 제방, 종 등의 축조물을 만들 때 완성하지 못하고 계속

- 
- 3) 자신의 몸을 바쳐서 효를 완성하는 효행담은 인신공희설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효행담의 경우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재난이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띠는 측면에서 보자면 효 실현을 위한 인신공희 이야기는 개인적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적 상황’을 곧 ‘재난 상황’으로 설정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효의 인신공희적 이야기나 순절(殉節) 같은 열(烈)의 자기살해는 구조적 재난 상황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어떤 재난보다 사회적이고 집단적이다. 과잉 효열(孝烈)로 인해 생명을 훼손하는 행위가 한두 사람의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일탈 사건이나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내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문제적이다. 따라서 가시적인 재난은 아니지만 이데올로기적인 사회 구조적 시스템에 의해 열녀와 효자를 양성해 내는 것에 대해서도 ‘재난’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 4) 인신공희설화들은 인주형 설화 외에, 희생의 목적에 따라 괴물이나 악신을 퇴치하는 ‘지네장터형 설화’나 바닷길의 안전한 항해와 풍어를 기원하는 ‘해양형 설화’, 희생을 통해 효를 완성하는 ‘효도형 설화’ 등이 있다.

실패하자 사람을 기둥으로 삼아 성공적으로 완성했다는 이야기 유형이다. 인주(人柱)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사람이 기둥이 된다’는 뜻인데 집이나 제방, 종 등을 만들 때 살아있는 사람을 기둥으로 삼아 축조물을 완성한다는 의미이다. 인주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소재로 하는 인주설화군은 한국, 중국 등의 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유럽 등지에서도 보고되고 있는 이야기이다.<sup>5)</sup>

지금까지 인주설화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측면에서 인신희생설화 혹은 인신공희(人身供犧)설화의 하위분류로 언급되는 경우이다.<sup>6)</sup> 이런 연구들은 인신공희설화의 전반적인 전승 양상을 살펴거나 인신공희 습속의 여러 양상과 의미를 탐구하는 가운데 하위 유형으로 인주설화를 간략하게 고찰하고 있다. ‘사람 제물’과 ‘희생’을 강조하는 큰 틀에서 인주설화가 인신희생설화의 하위분류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인주설화를 인신희생설화의 하위 유형의 차원에서만 연구를 진행할 경우 인주설화만이 지니고 있는 ‘희생’을 다루는 변별적 특징을 찾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다음으로 직접적으로 인주설화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논문들도 있다.<sup>7)</sup> 대부분 이들 논문들은 인주설화를 집 건축형, 제방 축조형, 종 주조형으로 분류하고 그 설화들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인주설화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그 이야기들을 정리해 놓고 있어 인주설화의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5) 박종성, 「한국·동유럽 구비시가 비교 연구의 한 측면」, 『구비문학연구』 15집, 한국구비문학회, 2002, 387-427면.

6) 이영수, 「한국설화에 나타난 인신공희의 유형과 의미」, 『한국학연구』 13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04, 81-118면; 이정재, 「희생제의 설화의 원형성 연구-인신공희설화 중심」, 『구비문학연구』 28집, 한국구비문학회, 2009, 133-156면; 최운식, 『한국설화연구』, 집문당, 1991; 장덕순, 『한국설화문학연구』, 서울대 출판부, 1978, 29면.

7) 강형선, 「인신희생설화의 양상과 기독교적 의미」, 강릉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김화경, 「전이와 수용: 人柱說話의 研究」, 『동방문학비교연구총서』 1, 한국동방문학비교연구회, 1985, 309-324면; 손영란, 「인주설화의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1; 양상현, 「건축에 부가된 신화적 상상력-인주설화와 창사 희생설화를 중심으로」, 『동양예술』 9호, 한국동양예술학회, 2004, 48-89면.

그런데 지금까지 인신희생설화에 대한 연구 업적이 양적으로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지만 이 설화군을 본격적인 재난 서사의 구조로 파악한 연구는 보지 못했다. 특히 인주설화를 재난의 관점에서 바라본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며 인주설화를 통해 재난의 대응 양상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인주설화는 ‘재난’ 모티프에 주목하여 각각의 유형이 전달하는 상징적 의미들을 한편에서는 설화적으로, 한편에서는 현실적 맥락에서 세심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주설화를 ‘재난 서사’의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고 그 속에 드러난 재난에 대한 설화적 상상력과 희생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인주설화는 양적으로 많은 편수가 남아 있지는 않지만 전승집단의 재난에 대한 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재난 자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재난에 대한 설화적 상상력과 재난의 극복, 그리고 그 해결 속에 숨겨진 희생의 타자성과 폭력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설화 속 재난 서사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같은 작금의 ‘재난 현실’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2. 인주설화의 자료 개관 및 재난 모티프

### 2.1. 인주설화의 서사단락

#### 2.1.1. 제방 축조형

저수지 제방 공사 때에 산 사람을 인주로 묻는 제방 축조형 인주설화들이 전해오고 있는데 각 편의 서사 단락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상주의 「함창 공갈못 전설」<sup>8)</sup>

8) 최상수, 『한국 민족 전설의 연구』, 성문각, 1988, 79면.

- ① 옛날 함창의 공갈못[恭儉池]은 아무리 튼튼히 쌓아 올려도 비가 조금만 오면 독이 무너져 마을 사람들의 수해가 컸다.
- ② 어느 해에도 못 독이 끊어져 마을 사람들이 고심하고 있었는데 한 중이 나타나 '산 사람을 기둥으로 세워 제방을 쌓아 올리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줬다.
- ③ 마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하자고 하고 사람 기둥이 될 사람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 ④ 인주의 방법을 알려줬던 중이 다시 나타나 스스로 자신이 인주가 되겠다고 했다.
- ⑤ 마을 사람들은 즉시 그 중을 인주로 세워 독을 쌓아 올렸다.
- ⑥ 그 뒤로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제방이 끊어지는 일이 없게 되었다고 한다.

(나) 평안남도 「강서 지방 인주설화」<sup>9)</sup>

- ① 조선 초기 강서군 동진면 송학리 제방이 홍수 때마다 끊어져서 큰 수해를 입곤했다.
- ② 어느 해 제방이 또 무너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흙을 나르고 돌을 쌓아 제방 수축 공사를 했다.
- ③ 그때 한 중이 나타나 '사람을 기둥으로 세워 쌓는다면 튼튼해져서 끊어질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 ④ 사람들은 인주의 방법을 받아들였으나 마을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스스로 사람 기둥이 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다.
- 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인주의 방법을 알려준 그 중을 산 채로 묻고 공사를 마쳤다.
- ⑥ 그 뒤로 독은 끊어지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다) 신안군 자은면 「거지중과 제방」<sup>10)</sup>

- ① 마을에서 제방을 쌓았으나 계속 독이 터졌다.

9) 위의 책, 80면.

10) 문화재연구소, 『구비전승자료』 전남·북도편, 문화재관리국, 1987, 532면.

- ② 짐배를 보니 인주를 넣어야만 제방이 터지지 않는다고 했다.
- ③ 그러나 차마 마을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인주로 삼을 수는 없었다.
- ④ 마을 사람들은 외지에서 동냥 온 낫선 중을 꼬여 술을 먹인 후 제방 공사를 하는 곳에 밀어 넣었다.
- ⑤ 그렇게 제방을 완성했는데, 그 후로는 제방이 터지지 않았다고 한다.

(라) 「벼락 맞은 아버지」<sup>11)</sup>

- ① 전라도 영암 삼호 고을에서 독을 막았는데 계속 터졌다.
- ② 용한 무당이 어린아이를 인주로 삼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 ③ 마을의 촌장이 어린애를 구하러 다니는데 이 소문을 들은 주정뱅이 김서방이 돈으로 주모의 환심을 사려고 어린 자식을 팔았다.
- ④ 김서방은 바위에서 벼락을 맞아 죽었다.
- ⑤ 사람들은 그 아이의 혼이 독을 지키는 구렁이가 되어 독이 터지지 않는다고 한다.
- ⑥ 수문 아래로 흐르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아이가 엄마를 찾는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한다.<sup>12)</sup>

(마) 「용수동 제방」<sup>13)</sup>

- ① 백성들을 동원해서 제방 공사를 했다.
- ② 골속을 막고 아침에 일어나면 매번 제방이 터져 있었는데 골속의 용이 꼬리를 쳐서 그렇다고 했다.
- ③ 어느 날 노승이 나타나 ‘중을 잡아넣으면’ 용이 꼬리를 치지 못한다고 했다.

11) 민병훈, 『한국대표야담전집』 권3, 민중서관, 1980, 322-332면.

12) 이 이야기와 비슷한 설정으로, 어떤 여자 걸인이 돈을 위해 아이를 팔았다가 벼락을 맞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른 내용은 모두 비슷한데 주정뱅이 김서방을 여자 걸인으로 설정한 것만 다르다.(문화재연구소, 「벼락바위」, 『구비전승자료』, 전남·북도편, 문화재관리국, 1987, 320-321면.)

13) 강형선, 2007, 24면 재인용.(『한국구비문학대계』 1-5, 510-511면) 성남에서 조사된 인주설화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발견된다. 바닷물을 막기 위해 제방을 쌓는데 계속 제방이 터지자 한 노승이 나타나 ‘중을 잡아넣으면 된다’는 말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곧 그 노승을 제방 만드는 데 밀어 넣어 독을 완성했다는 내용이다.(『한국구비문학대계』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510-511면)

- ④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방 공사에 그 중을 잡아넣었다.
- ⑤ 그 뒤로 더 이상 제방의 물이 터지지 않았다.

(바) 「김제 벽골제 이야기」<sup>14)</sup>

- ① 신라 원성왕 때 김제 태수 주도로 벽골제 보수 작업을 했다.
- ② 이때 공사를 맡은 원덕량은 서라벌에 약혼녀 월내를 두고 김제로 와서 공사를 지휘하게 됐다.
- ③ 시간이 흘러 월내는 남장을 하고 원덕량을 찾아왔지만 공사 중에 여인을 만나면 일을 그르친다고 하여 원덕량을 만나지 못하고 공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 ④ 그런데 김제 벽골제에는 청룡이 있어 폭풍우를 내리고 독을 자꾸 무너뜨려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다.
- ⑤ 부역하던 사람들은 청룡을 피해 달아나면서 청룡을 달래기 위해서는 처녀를 집어넣어야 독을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⑥ 김제 태수는 처녀를 구하지 못해 고심하던 차에 월내가 찾아온 사실을 알고 그녀를 제물로 바치려는 계락을 세운다.
- ⑦ 태수의 딸 단야가 원덕량을 사모했는데 원덕량은 공사에만 신경을 쓰므로 제방도 완공하고 딸의 소원도 들어주기 위해 태수는 월내를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것이다.
- ⑧ 그런데 단야가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이 제물이 되기로 결심하고 월내와 방을 바꾼다.
- ⑨ 이 사실을 모르는 태수는 결국 자기 딸 단야를 청룡의 제물로 바친다.
- ⑩ 그 덕분에 벽골제는 완공되었고 이후 단야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제가 이어지고 있다.

제방 축조형 인주설화 각 편은 조금씩 변이를 보이고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 서사는 다음과 같다. ‘계속해서 무너지는 제방으로 인해 홍수 피해가 발생함 → 완전한 제방 축조를 위해 인주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14) 손영란 앞의 논문(65-70면과 「단야의 설화」(디지털김제문화대전 <http://ginje.grandculture.net/>)를 참고하여 서사 단락을 정리함.

중(혹은 무당)이 알려줌 → 중(어린이, 처녀)을 인주로 삼아 제방을 완성함<sup>15)</sup> → 그 후로는 제방이 터지지 않음'으로 정리될 수 있다. 각 편의 마지막 부분은 추모제를 지내는 내용(「김제 벽골제 이야기」)이나 혹은 인주로 죽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벼락 맞은 아버지」)는 내용 같은 후일담이 첨가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인주의 방법을 사용한 이후 더 이상 독이 터지지 않고 완전한 제방을 축조하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말이다. 그리고 그 결말 속에는 온전한 제방 축조 덕분에 더 이상 수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 2.1.2. 집 건축형

집을 지을 때 집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어린이를 희생으로 문었다는 집 건축형 인주설화들이 있는데 각 편의 서사 단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최충헌 이야기」<sup>16)</sup>

- ① 충헌이 인가 백여 채를 헐어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 대궐과 비슷하였다.
- ② 토목의 역사가 심해 국내의 불평이 많았다.
- ③ 동남동녀를 잡아 오색 옷을 입혀 네 모퉁이에 묻는다는 말이 퍼졌다.
- ④ 아이 가진 이는 모두 아이를 숨기고 업고 도망을 갔다.
- ⑤ 충헌이 아이를 잡는 자가 있으면 잡아서 고하라 하자 요언(妖言)이 그쳤다.

(나) 「옹주의 저택지」<sup>17)</sup>

- ① 조선 성종 때 옹주의 저택을 새로 짓는데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워만 놓으면 그 이튿날 넘어졌다.

15) 동자부처상 같은 대체물로 희생을 삼아 살아있는 사람을 인주로 희생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낸 변이형 버전도 있다. 진북 삼례에 전하는 인주설화가 사람 대신 동자부처상을 문은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수지의 독이 거둬 무너졌다. ② 동자부처를 만들어 제방 가에 묻고 공사를 진행했다. ③ 제방을 성공적으로 완성했다.(『한국구비문학대계』 5-2, 703-704면.)

16) 『고려사열전』 제42, 「최충헌조」(최상수, 앞의 책, 82면 재인용)

17) 최상수, 「옹주의 저택지(邸宅地)」, 『한국 민간 전설집』, 통문관, 1984. 48-49면.

- ② 공사 담당자나 공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 ③ 하루는 그 앞을 지나던 풍수사가 집을 튼튼하게 하려면 참혹하지만 어린 아이를 주춧돌 밑에 묻어 지대를 압승(壓勝)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 ④ 공사 책임자는 풍수사가 일러준 대로 몰래 어린아이를 주춧돌 밑에 묻어 기둥을 세웠다.
- ⑤ 그 후 기둥이 넘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집도 튼튼하게 잘 지어졌다고 한다.
- ⑥ 이 말이 각지에 퍼지자 서울의 여러 가정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대문 밖에 내놓지 않았다 한다.

(다) 「성동의 집터」<sup>18)</sup>

- ① 조선 중종 때 상주 지역에 성동(成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몇 번이고 집을 지었으나 자꾸 무너졌다.
- ② 무당을 불러 굿을 하였으나 역시 마찬가지로 무너졌다.
- ③ 하루는 성동이 낮잠을 자는데 백발노인이 꿈에 나타나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어린아이 둘을 집터에다 묻고 집 기둥을 세우면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다.
- ④ 그 꿈을 끈 후로 남몰래 어린아이를 묻을 양으로 구덩이를 파놓고 쉬려고 하는데 웬 어린아이 둘이 나타나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므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 그 두 아이를 묻어버렸다.
- ⑤ 이렇게 새로 집을 지었더니 그 뒤로는 집이 무너지지 않았다.
- ⑥ 성동의 집 근처의 심씨와 이씨 집 어린아이가 갑자기 집을 나간 채 돌아 오지 않으므로 수탐해 보았더니 성동이 자기 집을 지을 때 이 아이들을 묻어서 액땜한 것이 탄로났다고 한다.

집 건축형 인주설화 역시 제방 축조형과 마찬가지로 각 편마다 조금씩 변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서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집을 짓는 데 자꾸 무너짐 → 어린아이를 집의 기둥으로 세우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18) 최상수, 「성동(成同)의 집터」, 위의 책, 281-282면.

함 → 인주를 세우고 집을 지었더니 무너지지 않음 →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아이를 데리고 도망감'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 유형의 이야기가 제방 축조형과 확연히 달라지는 지점은 마지막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인주를 세워서 집을 지었더니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주의 소문이 확산되어 이를 두려워한 사람들이 모두 도망갔다는 것이다.

집 건축형 인주설화는 현재 남아 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데 재미있는 것은 설화 자료들이 실록 자료들과 섞여서 전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 「최충헌 이야기」는 실제로 『고려사 열전』에 남아 있는 이야기이며 두 번째, 세 번째 사건 역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다.<sup>19)</sup> 이는 설화와 소문의 경계가 모호하고 소문이 민간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2.1.3. 종 구조형

종을 만들 때 어린아이를 넣어서 만들었다는 종 구조형 인주설화는 대표적으로 「에밀레종」 전설인데<sup>20)</sup> 이를 기본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신라 36대 해공왕 때 선왕이 시작한 종을 만드는데 계속 종이 터져 실패를 거듭했다.
- ② 주조를 맡은 공장(工匠)이 고심하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했다.
- ③ 그러던 중 하루는 갑자기 한 노승이 나타나 어린아이를 인주로 해야 한다고 했다.
- ④ 그 말을 들은 공장(工匠)은 몰래 어린아이를 솟물이 끓는 가마 속에 넣어 끓였다.

19) 『조선왕조실록』 성종 25년 5월조에는 왕의 사헌부 교지에 집을 지을 때 어린아이를 묻는다는 소문을 언급한 기록이 있으며, 『조선왕조실록』 「중종 23년 7월」조에서도 이웃 아이를 묻었다는 말을 듣고 집을 지은 관계자들을 잡아서 심문하였으나 이는 모두 의옥(疑獄) 사건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 에밀레종 외에 평양 동종에 대해서도 주조 시 어린아이를 넣어서 만들었다는 비슷한 전설이 전한다.

⑤ 마침내 종을 만들어냈다.<sup>21)</sup>

「에밀레종」 설화는 다양하게 구비자료로 전승되고 있는데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두 가지 버전으로 변이형의 서사 단락을 정리할 수 있다.

(가) 「에밀레종」 설화<sup>22)</sup>

- ① 종 주조를 계속적으로 실패하자 모든 사람들이 걱정한다.
- ② 어떤 노인이 주지의 꿈에 나타나 ‘시주할 것이 없으니 어린애라도 가져 가라’고 한 여인의 불경(不敬)한 농담을 지적하며 그집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고 알려준다.(일관이 어린애를 솥물에 넣으라고 하기도 한다.)
- ③ 주지가 시주를 받으러 다녔던 중들을 불러서 여인의 실언(失言)을 확인한다.
- ④ 여인에게 가서 아이를 달라고 하니 여인이 처음에는 거부하였으나 결국 부처님의 뜻으로 알고 순순히 아이를 준다.
- ⑤ 어린아이를 솥물에 던져 넣어 종이 완성된다.
- ⑥ 종을 칠 때마다 에밀레라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나) 「에밀레종」 설화<sup>23)</sup>

- ① 종을 주조하는 공장(工匠)이 계속 종 주조에 실패하자 모두가 비난한다.
- ② 장인의 과부 누이는 자기의 부덕(不德)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여긴다.

21) 최성수, 앞의 책, 1988, 81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22) 「에밀레종」 설화 중 (가) 유형에 해당되는 자료들은 「봉덕사 종」(『구비문학대계』 7-2, 298면), 「봉덕사의 종」(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211면), 「에밀레종」(고정옥, 『조선구전문학연구』, 135면), 「에밀레종」(경주시, 『신라의 전설집』, 56면), 「에밀레종」(최래옥, 『전북민담』, 74면), 「생굿」(김헌선, 『한국의 창세신화』, 268면), 「원구님 청배」(『청구학총』 22, 189면) 등이 있다.(서사 단락은 심우장의 「설화 속 ‘종소리’에 대한 문학 치료학적 접근」, 『문학치료연구』제6집, 2007, 140-141면에서 재인용하여 수정·정리함)

23) 「에밀레종」 설화 중 (나) 유형에 해당되는 자료들은 「봉덕사의 종」(최상수, 『한국민간전설집』, 208면), 「성덕대왕신종」(양승운, 『영남사적과 사회』, 109면) 등이 있다.(서사 단락은 심우장의 「설화 속 ‘종소리’에 대한 문학 치료학적 접근」, 『문학치료연구』 제6집, 2007, 140-141면에서 재인용하여 수정·정리함)

- ③ 시주 온 종이 과부 누이에게 어린애를 인주로 해야 종이 완성된다고 알려준다.
- ④ 누이는 고민하다가 오빠를 위하여 자신의 딸을 바치기로 한다.
- ⑤ 누이의 어린 딸은 쇳물에 던져지고 종이 완성된다.
- ⑥ 종을 칠 때마다 에밀레라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종 구조형 인주설화는 계속되는 종 구조 실패에 어린아이를 쇳물에 넣어서 종을 완성했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는 인주가 되는 어린아이가 시주승에게 불경한 농담을 한 여인의 아이이고, (나)는 종 구조를 맡은 공장(工匠)의 누이 딸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한편 「에밀레종」 이야기가 서사 무가에서 본풀이 형태로 삽입되어 구연되기도 했는데<sup>24)</sup>, 이는 내용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승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에밀레종」 설화의 내용이 무가적인 신앙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가에 수용된 것에 대해서는 희생의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 2.2. 설화 속에 함유된 ‘재난’ 모티프

설화의 세계에서 ‘재난’ 화소가 항상 표면적이고 명시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상징적이고 내포적으로 함축하는 경우가 더 많다. 앞서 인주설화의 서사 단락을 정리해 봤는데 이를 바탕으로 설화 속에 내재된 ‘재난’ 화소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제방 축조형에서 제방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계속해서 허물어지는 것은 분명한 재난 상황이다. 설화 속에서도 비와 홍수로 인한 마을 전체의 ‘큰 피해’를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예로부터 수재(水災)와 한재(旱災) 등 물로 인한 재해를 가장 심각한 재난으로 여겼다. 물이 너무 많은 홍

24) 함흥지역 무가인 「생귀」(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269면)이나 평안도 강계 지역 무가인 「원구님 칭배」(『손진태전집』 5, 1981, 264-265면) 등이 이에 해당된다.(박종성, 앞의 논문, 389-391면 참조)

수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물이 너무 없어 문제가 되는 가뭄 역시 큰 재난이었다. 농경문화에 뿌리를 둔 사회에서 물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은 민중들의 생존과 국가의 재정에 관련된다. 홍수나 가뭄은 농경사회에서 곡물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곡물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대기근으로 이어져 엄청난 사상자를 낼 수 있다. 특히 대기근은 국가 재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민심의 동요를 동반하여 국가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물을 다스리지 못해 생기는 재난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었기에 예로부터 위정자들은 치수(治水) 사업을 중히 여겼다. 이런 치수 사업의 핵심이 바로 홍수와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제방’인 것이다. 그런데 이 제방이 비가 올 때마다 무너진다는 것은 엄청난 재난 상황이며, 더욱이 현재 제방 공사를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것은 미래에도 엄청난 재난이 예견되는 위험 상황이다.

한편 집 건축형 이야기에서 집을 짓는 데 계속해서 무너진다는 것은 집단적이거나 사회적인 성격의 것이 아닌, 개인적 문제 상황처럼 보인다. 그런데 집 건축형 이야기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개인적인 집짓기가 아니다. 집의 주인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다. 일반 백성들은 계속 무너질 정도로 대규모 집을 짓지도 않을 것이며 어린아이를 인주로 삼을 만큼의 권력이나 재력도 없다. 집 건축형에서 건축은 대군, 옹주 혹은 고려시대 최충헌 같은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이들의 거창한 집짓기이거나 국가 권력 그 자체인 궁궐을 짓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왕이 민가의 어린아이 수십 명을 잡아다가 새 대궐 짓는 주춧돌에 파묻으려고 한다”<sup>25)</sup>는 식으로 집 건축형 인주설화는 인주가 이루어지는 대상물이 최고 권력자인 왕이나 그 상징물인 궁궐로 소문이 났는데 최충헌도 그에 버금가는 권력자였던 것이다. 그래서 최충헌의 집은 ‘인가 백여 채를 헐어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 대궐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25) 『고려사세가』 제36, 충혜왕 계미 후 4년(1343) 경술일(최상수, 앞의 책, 1988, 81면 재인용)

「성종 25년 5월」조 기록에 의하면 ‘여러 왕자와 옹주의 집을 여러 해 계속하여 짓자 경기·충청·황해도 등지의 사람들이 아이를 업고 산으로 들로 숨고 어린아이를 배에 태워 달아나 여러(閭里)가 이 때문에 비었다’고 한다. 인주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유포될 당시에 경북궁 중창 공사가 있었다고 한다.<sup>26)</sup>

이렇듯 권력자들의 궁궐 같은 무리한 집 건축 공사, 그것도 ‘여러 왕자와 옹주의 집을 여러 해에 걸쳐 계속 짓게’ 되면 수많은 백성들이 부역으로 동원되고 “토목의 역사(役事)가 심해 백성의 불평이 많게”(「최충헌 이야기」) 된다. 그런데 짓고 있는 집이 계속해서 무너진다면 그만큼 부역에 동원되는 이들의 고통은 쌓여가고 결국 그 지역 백성들에게 권력자의 집짓기는 하나의 집단적 재난으로 인식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건축 공사가 거듭 실패로 돌아가자 그 방안으로 살아있는 어린아이를 데려가서 기둥으로 삼아 묻는다는 ‘인주’의 소문은 민중들에게 건축 공사 실패보다 더 큰 재난의 위협 상황으로 인식되어 엄청난 불안과 공포를 심어줬을 것이다.

종 주조형은 재난 화소가 정치·사회적 의미층 속에 다층적으로 함유된 이야기로 보인다. 이 유형은 재난 모티프가 가시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종 주조의 거듭된 실패를 재난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울 수도 있는 한편, 오히려 표피적으로 종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종 주조의 거듭된 실패는 당연한 재난의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삼국시대의 불교가 국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호국불교적’인 성격을 띠는 점을 상기한다면 종 제작의 거듭된 실패를 종교적인 의미 차원에서만 받아들일 수 없고, 정치·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설화 속에서는 직접적으로 종을 만들게 된 이유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성덕대왕신종(예밀레종)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당시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설화 안팎에 포진되어 있다. 성덕대왕신종은 신라 제35대 경덕왕이 부왕인 성덕왕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만들기 시작했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한다. 이후 경덕왕의 어린 아들 혜공왕이 8살 나이로 즉위하였고 혜공왕 7년(771년)

26) 양상현, 앞의 논문, 63면.

에 종이 완성된다. 그런데 『삼국유사』에서 해공왕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상 자연현상이 연거푸 일어난다. 해공왕 대에 “땅이 꺼져서 못이 되고 해성과 유성이 떨어져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별이 떨어지는” 것 외에 각종 괴이한 일들로 천하가 크게 어지러웠다고 한다.<sup>27)</sup> 이런 식의 서술은 실화시대에 자연재난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자연재난은 모두 왕의 부덕이나 자질 부족 같은 것을 은유하며 정치적 문제로 연결시킨다. 그리고 『삼국유사』 「경덕왕 · 충담사 · 표훈대덕」 조에서는 ‘해공왕이 여자로 태어났어야 할 아이였는데 남자로 바뀌 태어났기 때문’<sup>28)</sup>에 모든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화적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덕왕 말기에 이르러 귀족들은 왕권에 반발하기 시작했고 해공왕 대에는 이미 경덕왕 때부터 약화된 왕권과 지배층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면서 모반 같은 사회적 재난이 거듭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sup>29)</sup> 그러자 왕권을 지키려는 자들은 이러한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종 제작에 대해 더욱 집착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라시대에 불교는 단순히 종교적 의미를 넘어 국가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다. 몽고의 침략이라는 대재난 앞에서 부처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국책사업으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던 것처럼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 역시 국내외의 재난을 종교적인 힘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제작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성덕대왕신종 외에도 경덕왕은 불교의 힘을 빌려 위기를 극복하고자 불국사, 석굴암을 지었고, 엄청난 무게의 황룡사종과 일 만 불상을

27) 일연 지음, 이민수 옮김, 「해공왕」, 『삼국유사』, 1999, 을유문화사, 161면.

28) “왕은 이미 여자로서 남자가 되었기 때문에 돌날부터 왕위에 오르는 날까지 항상 여자 놀이를 하고 자랐다. 비단 주머니 차기를 좋아하고 도류(道流)와 어울려 희롱하고 노니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지고 마침내 선덕왕과 김양상에게 죽음을 당했다.”(위의 책, 159면.)

29) 결국 해공왕은 이런 모반을 토벌하던 중에 살해되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전제왕권 시대가 저물고 귀족 연립의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해공왕 암살 이후 150년 동안 신라는 20명의 왕이 살해 · 교체되는 대혼란의 시대가 펼쳐진다.

모신 만불상도 모두 경덕왕 때에 만들어졌다. 결국 종 주조는 국가적 재난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국가적 안위를 위한 행위였던 것이다.

그러나 종 주조에 계속 실패하자 봉덕사의 중들은 전국에 시주를 받으러 다녔는데 백성들은 나라에 일이 있을 때마다 큰 역사(役事)에 동원되었고, 게다가 시주라는 명목으로 온갖 물건을 내놓아야 했다. 「에밀레중」 설화에서 내놓을 것이 없는 여인이 시주 온 중에게 ‘시주할 것이 없으니 어린애라도 가져가라’고 할 정도로 일반 백성들의 삶은 힘들었다. 그래서 「에밀레중」 설화 (가)와 (나) 버전에서 종 주조에 계속 실패하자 ‘모두가 걱정하거나’ ‘모두가 비탄하게’ 되는 공동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종 주조는 단순히 종교 공동체를 위한 것만이 아닌, 일반 백성들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행위였으며 나아가 국가 공동체를 위한 작업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에밀레중 설화는 제방 축조형 이야기처럼 홍수 같은 표면적인 재난 상황을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사회적 맥락을 따져보면 훨씬 다층적인 재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제방 축조형 설화에서 비와 홍수로 인한 큰 피해와 제방의 무너짐은 그 자체로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재난 상황을 상징한다. 반면 집 건축형 설화에서 권력자의 집이 완성되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는 것은 애초에는 권력자 개인의 문제 상황처럼 보인다. 그런데 집 건축 공사가 궁궐처럼 과도하게, 여러 해에 걸쳐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집 건축은 민중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부역의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다. 거기에 인주의 희생이 첨부되면서 백성들에게 권력자들의 집 건축은 재난으로 전이되고 재난의 집단성과 사회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한편 종 주조형에서는 ‘재난’ 화소가 내포적으로 숨겨져 있는데 정치적 사건과 맞물려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겠다. 재난의 화소로만 봤을 때 제방 축조형은 명시적으로, 집 건축형은 전이적으로, 종 주조형은 내포적으로 재난 화소를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인주설화는 모두 ‘재난’의 키워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 ① 제방, 집, 종을 만들었으나 계속해서 실패한다. [재난 발생]
- ② 인주의 방법을 사용한다. [인주 방법 실시]
- ③ 성공적으로 축조물을 완성한다. [재난극복]

큰 틀에서 ‘재난’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구조를 정리해 보면 ‘재난의 발생과 인주의 방법을 통한 재난 극복’이라는 마스터플롯<sup>30)</sup>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서로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 먼저 무엇을, 왜 만드느냐의 문제를 짚어보자. 제방이나 집을 축조하는 행위, 종을 만드는 행위는 의미상 교집합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변별적인 측면의 인식세계도 엿볼 수 있다. 집이나 제방, 종의 상징성은 다르며 축조의 주체들이 각각의 건축물을 축조하는 목적도 확연히 다르다. 집은 다분히 개인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거처할 수 있는 개인적인 사유의 것이고 제방은 지역 공동체의 안위를 위한 것이며 종은 종교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방형 인주설화는 홍수같은 자연재난이 바탕이 되지만 그 해결 방안으로 쌓는 제방이 계속 무너지는 것은 사회재난의 일종이다. 즉 제방형 인주설화는 자연재난이 사회재난으로 옮겨가면서 생기는 재난의 이중적인 모습을 형상화한 이야기로, 자연재난이 어떻게 ‘인주’라는 사회재난의 폭력성을 배태하게 되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집 건축형은 대궐같은 집 건축의 시도와 실패, 그리고 인주의 방법 실행 등이 모두 애초 권력형 인간이 만든 폭력으로 인한 ‘인적 재난’을 상상한 이야기이다. 종 주조형 인주설화는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지 않은 시대에 종교를 통해 국가적 재난을 해결하고

30) ‘마스터플롯’이라는 용어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스토리들의 뼈대’를 의미하는 용어이다.(H.포터 애벗 지음, 우찬제 외 옮김,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448면) 되풀이해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마스터플롯은 분명 일정한 유형을 갖추고 있지만 단순히 똑같이 반복되는 공식이 아니라 이야기 유형의 생동적인 변화 가능성을 지닌다. 즉 마스터플롯의 도식적 내러티브가 시대정신이나 특정한 사회·문화적 배경, 혹은 설화 대중들의 의식과 결합할 때 충분히 독창적이고 역동적인 의미망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제방형, 건축형, 종 주조형의 이야기들은 같은 인주설화로서 마스터플롯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키워드로 작품을 해석해 내느냐에 따라 이야기의 풍부한 재미는 달라지는 것이다.

자 한 ‘사회재난’형 이야기이다. 이때 나머지 두 유형과 달리 ‘공동체’라는 표피를 쓰지 못한 집 건축형 인주설화는 축조물의 완성을 통해 재난이 극복되는 상황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공포와 불안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 3. 재난의 설화적 상상력과 희생에로의 방향 전환

#### 3.1. 설화적 상상력의 존재들

인주설화에서 제방이나 집, 종 등이 계속 무너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화소이지만 이 사건이 발생하는 전후 맥락이 설화적 세계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먼저 제방이나 집, 종이 무너지는 이유를 살펴보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방이나 집, 종이 무너지는 것은 과학적 축조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명약관화한 이유가 있을 터이다. 하지만 설화적 세계에서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용이 꼬리를 치기’(「용수동 제방」) 때문이라든지, ‘청룡이 무너뜨리기’(「김제 벽골제 이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제방이 무너지는 이유를 실제적 이유가 아닌, 청룡의 존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제방이나 집이 무너지는 원인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설령 제방이나 집이 계속 무너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소거된 버전이라 하더라도,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하리라는 의심을 서사 속에 배치한다. 제방과 집이 계속 무너지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고, 최고의 장인이 종을 주조하는데 그것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도 알 수 없다. 여기에서 ‘알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모른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존재의 힘’을 의심하게 된다. 인간의 지적 한계 상황을 넘어설 때 인간은 알 수 없는 힘이 작동한다고 믿게 되고 알 수 없는 힘을 상정하는 순간, 실패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신과 인간의 문제임을 내포적으로 함의하게 된다.<sup>31)</sup> 설화적 세계에서 대홍수를 악한 인간에 대한 신의 징벌로 인식하며 신의 계시를 받은 선한

인간만이 신의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에서처럼 알 수 없는 거듭되는 실패 역시 인간을 시험하려는 신의 존재에 의한 것이라는 의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제방 축조나 집 건축, 종 주조의 거듭되는 실패 원인은 결국 알 수 없는 존재의 힘이 작동한 것이며 때에 따라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청룡’ 같은 존재를 등장시키는 것이다.

재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힘의 작용, 즉 용이나 신의 존재 때문이라는 믿음은 예언적·예지적 존재의 등장을 예고한다. 재난 자체가 애초에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힘으로는 닿을 수 없는 것이니 신을 대신해서 재난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줄 설화적이고 예언적·예지적 존재들이 등장하는 것은 서사 진행상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예언적 존재들은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존재이다.

제방 축조형 이야기에서 인주의 방법을 알려주는 존재는 대부분 ‘중’으로 나타난다. 버전에 따라 점괘를 보아서 알게 된 경우나 용한 무당이 알려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나가던 중이 인주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집 건축형 인주설화인 「성동의 집터」 이야기에서는 꿈에 ‘백발노인’이, 「용주의 저택지」에서는 ‘풍수장이(風水師)’가 인주의 방법을 알려준다. 종 주조형에서는 시주 온 중이 누이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꿈속의 ‘노인’이 주지승에게 알려주거나 버전에 따라 일관(日官)이 알려주는 방식이다.

설화적 세계에서 인간의 의지로 어쩔 수 없는, 거듭되는 재난을 해결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신이다. 그런데 무당이나 중, 풍수쟁이, 꿈속 백발노인, 일관은 인간과 신의 중간에 있는 경계인이자 신의 대리인이다. 이런 신의 대리인이 알려준 ‘인주(人柱)’의 방법은 설화의 세계에서 모든 대중들에게

---

31) 대표적인 재난 설화로 언급되는 홍수설화들이 대부분 신과 인간의 문제로 재난의 원인을 해석하고 있다. 재난의 원인을 인간의 사악함에서 찾는 것인데 이것은 동서양 홍수설화의 공통적인 경향이다. 한국의 광포 설화 중에 「장자뭇」 설화 역시 못되고 인색한 장자를 벌하기 위해 홍수를 일으키고 있다. 다만 홍수설화가 신화적 시대 속에 신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상정한다면 인주설화는 좀 더 인간 세계 속으로 들어온 설화군이라고 할 수 있다. 제방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가뭄이나 홍수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통용된다. 인주의 방법은 과학적 상식으로는 황당함 그 자체일 수 있지만 설화적 세계 속에서 대중들은 모두 인주의 방법에 믿음을 갖고 ‘이구동성 한마음으로’ 적극 수용하여 살아있는 사람을 인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신적인 힘을 빌려 제방이나 집, 종을 튼튼히 하려는 설화적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며 재난에 대한 설화적 상상력과는 무관하지 않다. 자연과 인간, 세계에서 설화 대중들은 재난을 신과 인간의 범주로 생각한다. 재난을 인간의 사악함에 대한 신의 징벌로 보기 때문에 신에게 인주라는 희생양을 바치면 재난은 해결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집 건축형인 「최충헌 이야기」에서는 인주의 방법을 알려주는 예언적·예지적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최충헌 이야기」의 경우 『고려사열전』에 실려 있다는 점, 즉 이야기 자체가 사실적 기록이라는 점과 관계가 있다. 미래 예언적 존재는 설화적 상상력과는 자연스럽게 결합되지만 ‘사실’을 따지는 현실세계에서는 합당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고려사열전』은 ‘사실’을 기록하는 역사사이다 보니 설화적 세계에서 통용되는 예언적 존재는 소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인주’같은 충격적인 방법을 신의 대리인이 알려줬다고 하는 것은 설화적 상상력 속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사실’을 담보하는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 3.2. 희생에로의 방향 전환

인주설화 각 유형은 계시적 존재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재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인주가 똑같이 제시된다. 그런데 재난의 위험 상황이 ‘인주’라는 희생의 표적에게로 향하게 되면서 어떤 유형은 위기의식이 봉합되고, 어떤 유형은 더 큰 위기의식으로 치닫는다.

재난의 진행 상황은 ‘위험-재난-위기-파국’의 계열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위험’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재난의 가능성이며 재난은 가능성으로서의 위험이 현실화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위기’는 재난이 극복되지 못하고 재난의 연쇄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을 향할 때 생기는 것으로, 국면

이 나뉘는 지점에서 어떤 것을 명확히 선택하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판단이 옳으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결정적인 몰락이나 절멸로 진행되는데 이것이 ‘파국(catastrophe)’이다.<sup>32)</sup>

인주설화에 나타난 재난의 화소를 이 계열로 파악해 봤을 때 제방 축조형의 내용은 파국으로 치닫지 않는다.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미래적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위험이 현실화된 재난 사건이다. 그런데 제방 축조형에서 재난은 ‘위기’를 넘어 마을 전체가 수몰되는 결정적 몰락이나 절멸로 가지 않고 극복되는 쪽으로 선회한다. 그것은 바로 예지적 존재들에 의해 제시된 인주라는 재난의 해결 방법 덕분이다. 따라서 제방형에서 중요한 것은 비나 홍수 같은 재난의 원인이라기보다 예언적 존재들에 의해 명시된 재난의 해결 방법이다.

보통 공동체에 위기가 닥쳤거나 재난이 곧 닥쳐올 것 같은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거나 해결할 방안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재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가 불만이나 원한이 되어 사회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는 신의 대리인이 등장하여 인주라는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데 사실 예언적 존재는 핑계에 불과하고 당면한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전가하거나 대체할 뭔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공동체 내부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의 방향을 ‘인주’로 집중시키는 ‘방향 전환’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sup>33)</sup> 제방 축조형 설화 속에서 재난이 모두가 전멸하는 파국적 상상력으로 치닫지 않는 것은 이렇게 희생에로의 방향 전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것이 인주설화가 홍수설화와 변별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홍수설화 역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설화적 상상력은 비슷하지만 신의 계시를 믿는 선택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세상의 모든 만물, 혹은 적어도 마을

32) 재난을 ‘위험, 재난, 위기, 파국’의 계열 속에서 설명한 것은 문강형준의 「왜 ‘재난’인가」(『문학/과학』 72집, 2012, 22-23면) 참조.

33) 르네지라르 지음, 김진석·박무호 옮김,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2019, 145면.

전체가 없어지는 파국에 이른다.<sup>34)</sup> 하지만 인주설화에서는 알 수 없는 존재에게 인주라는 희생양을 바치면 재난이 해결되는 것으로 전제되면서 위기 상황이 봉합되는 것이다. 종 구조형도 파국으로 진행되지 않고 ‘위기’를 종교적으로 봉합하는데 그것은 인주의 희생을 부처의 뜻으로 적극 수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집 건축형 인주설화는 희생에게로 방향이 전환되는 국면에 이르자 재난의 진행이 오히려 파국에 가까운 양상을 보인다. 어린아이를 인주로 쓴다는 소문에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모두 도망가 버려서 마을 전체가 ‘텅 비게’ 되는 것이다. 홍수에 의해 마을이 잠기는 것은 아니지만 인주의 소문에 의해 한 마을이 텅 비게 되는 것도 일종의 파국적 상상력의 일단이다. 집 건축형에서 민중들에게 가장 큰 재난은 집을 짓는 부역의 고통이나 ‘남’의 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집 아이’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잠재적 위험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된다. 계열적으로 보자면 ‘위험’에 대한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재난을 건너뛰고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형국인 것이다. 이렇게 인주라는 공통 화소로 유형화한 설화들이지만 ‘희생’으로의 방향 전환’ 지점에서 재난이 진행되는 양상은 달라지기도 한다. 이는 결국 희생의 성격과 긴밀하게 연결되며 희생에 대한 설화 대중들의 의식이 이야기 서사에도 긴밀하게 반영되는 것이다.

#### 4. 희생 시스템의 외부성과 폭력성

본장에서는 인주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과 인주로 희생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희생’의 집단 폭력적인 성격이 희생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종교적으로, 설화적으로 은폐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4) 노아의 방주에서는 세상 전체가 물에 잠기고, 우리나라의 「장자뭇」 설화 역시 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게 되며 계시를 받은 착한 며느리조차 돌이 되어 버리는 파국을 맞이한다.

먼저 인주가 될 희생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문제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인주가 제시되었는데, 문제는 누가 인주가 되느냐이다. 제방 축조형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모든 버전에서 인주가 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인주가 될 사람을 ‘찾지 못했거나’ ‘아무도 스스로 인주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없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한다. 「김제 벽골제 이야기」에서는 청룡을 달래기 위해 ‘제방에 처녀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하지만 처녀를 구하지 못해 고심한다.

집 건축형 이야기에서는 아무리 권력자라고 해도 사적인 집을 짓는 데에 인주가 될 아이를 구한다는 언술을 표면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리고 아이를 몰래 데려가는 것으로 서사가 진행되는데, 이런 설정 자체가 인주가 될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종 구조형에서는 부처님의 뜻으로 당연시하며 인주가 될 아이를 구한다. 사실 인주가 될 사람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살아 있는 사람을 물어버리는 인주는 어떤 도덕적인 잣대로 평가해도 합리화가 불가능한 집단 폭력이다.

이렇듯 인주가 될 사람을 찾지 못하는 또 다른 난관 앞에서 중이나 어린 아이, 처녀가 인주의 희생자로 결정된다. 제방 축조형 이야기에서는 주로 중이 인주가 되는데 희생을 자처하는 중이 있는 버전도 있지만 대부분은 타의에 의해 강제로 인주가 된다. 「함창 공갈못 전설」에서는 인주의 방법을 알려줬던 중이 스스로 인주를 자처했고 「강서 지방 인주설화」, 「거지중과 제방」, 「용수동 제방」 등에서는 강제로 중이 인주로 희생된다. 「강서 지방 인주설화」, 「용수동 제방」이야기에서 마을 사람들은 인주를 자원하는 사람이 없자 인주의 방법을 알려준 ‘중을 잡아넣어서’ ‘산 채로 묻고’ 공사를 마친다. 「거지중과 제방」에서는 외지에서 탁발 온 낫선 중을 꼬여서 술을 먹여 희생시키고 「벼락 맞은 아버지」에서는 주정뱅이 김서방이 돈 욕심에 어린 자식을 판다. 「김제벽 골제 이야기」 역시 외지에서 홀로 약혼자를 찾아온 월내라는 처녀를 인주로 삼으려고 계략을 세운다. 집 건축형과 종 구조형에서는 모든 각 편에서 어린아이가 인주의 희생자로 결정된다.

여기에서 인주로 희생되는 이들과 인주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들에게서 중

요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인주를 구하는 주체는 공동체 내부자들인 ‘마을 사람들’이나 이들을 대표하는 마을의 촌장, 태수 혹은 권력자들이다. 반면 인주가 되는 사람들은 지나가던 중, 외지에서 온 거지 탁발승이나 노승, 외지인 월내, 힘없는 어린아이이다. 이때 인주로 희생되는 이들을 주목해보자. 이들은 모두 공동체 내부인이 아니고 외부인이거나 주변부 인물이다. 이들은 낯선 걸승이거나 외지에서 홀로 온 월내처럼 공동체의 바깥 사람들이다. 혹은 공동체 내부에 있지만 주정뱅이처럼 주변부에 있는 사람의 어린아이이다.

이들은 모두 어떤 식이든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결여된 인물들이다. 다시 말하면 인주로 희생된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희생에 대한 보복을 할 만한 사회적 관계를 갖지 못한 인물들이다. 인주라는 충격적인 집단의 폭력이 가해졌을 때 가까운 사람의 원수를 갚거나 복수를 하는 것이 의무라고 여겼던 내부의 사회적 관계를 갖지 못한 타자들이라는 것이다.<sup>35)</sup> 설령 자의로 인주가 된 중의 경우도 이들은 ‘나’나 ‘우리’가 아닌, 모두 ‘그들’로 호칭되는 타자성을 지닌 외부인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인주설화 모든 유형에서 어린아이가 희생자로 나타나는데, 인주가 되는 것은 아이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모두 타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정상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가장 타자적인 존재이다. 공동체 내부인이 다른 인간에게 가한 모든 희생은 외부인, 외부인 중에서도 철저히 타자화가 가능한 중, 여성, 어린아이 같은 취약자에게 향해 있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인주의 방법을 ‘이구동성 한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들 가운데에서는 그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다. 희생의 피해자가 아닌 내부 사람들은 인주에 대해 한발 뒤로 물러나 관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을 인주로 희생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폭력적인 행태이며 일종의 집단 폭력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폭력성에 대해

---

35) 르네 지라르에 의하면 희생될 만한 것과 희생될 만하지 않은 것은 본질적 특성에 의해 구별된다. 그 특성은 희생될 만한 제의적 희생물은 그 사회 사이에 어떤 유형의 사회적 관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특성을 지닌 것이라고 한다. 이런 사회적 관계가 결여된 이들에게는 어떤 관계로 얽힌 사람들에 의해 희생에 대한 복수를 당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쉽게 희생된다는 것이다.(르네 지라르, 앞의 책, 26면)

설화를 향유하고 전승하는 설화 대중들은 도덕적 부담감을 어떻게 벗어날까. 인주 설화의 전승 대중들은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희생에 대한 도덕적 부담감을 몇 가지 방향에서 처리하고 있다.

먼저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희생자가 자발적으로 인주의 희생을 자처한 경우이다. 스스로 인주가 된 「함창 공갈뭇 전설」 이야기 속의 중이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 인주의 폭력성에 대해 공동체 내부자들은 특별한 도덕적 부담감 없이 중의 희생을 적당히 미화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에도 인주의 희생자로 굳이 ‘중’을 선택한 것은 중이 신분적으로 종교적 희생의 의미를 부가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인주가 되겠다고 자처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을 때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내부 구성원들은 타자적 인물을 강제적으로 희생시킨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외지에서 탁발 온 낫선 중이나 외지에서 홀로 찾아온 처녀가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때의 윤리의식은 공동체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통합하며, 이런 희생 덕분에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제방이 절대로 끊어지는 일이 없게 되었다’는 공동체의 안녕을 강조하며 희생의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희생의 폭력성을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하는 경우도 보인다. 「벼락 맞은 아버지」에서는 인주라는 폭력의 책임을 주정뱅이 아버지에게로 전가한다. 제방 공사에 아이를 인주로 희생시킨 마을 사람들의 집단 폭력성은 건드리지 않은 채 돈에 눈이 멀어 어린 자식을 판 아버지를 벼락 맞아 죽게 하는 징벌을 내림으로써 죄인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 끝난 것처럼 포장된다. 결국 이는 인주로 아이를 희생시킨 책임을 전적으로 주정뱅이 아버지에게로 전가하여 공동체 내부 동조자들의 폭력적 책임을 회피 또는 은폐하게 해 준다.

「에밀레종」 설화에서는 어린아이를 인주로 희생시킨 폭력을 아이 어머니의 불경(不敬)과 실언(失言)에 책임 지운다. 종 주조를 위해 시주를 다니던 중들에게 어느 여인은 ‘시주할 것이 없으니 어린애라도 가져가라’고 한다. 이는 가난을 한탄조로 말한 것인데 그것을 불경과 실언으로 지적하며 아이의 희생을 정당화한다. 다른 유형에서는 종을 주조하는 공장(工匠) 누이의 부덕

(不德)에 책임을 덧씌운다.

그러나 아무리 어머니의 실언에, 혹은 누이의 부덕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도 어린아이를 씻물에 녹여낸 충격은 가시지 않는다. 이런 부담감 때문인지 「에밀레종」 설화는 독특하게 서사무가로 정착한다. 설화가 무가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생당한 존재를 신성한 존재로 끌어올려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한편으로는 희생의 부당함을 위로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종이 완성됨으로써 인간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를 전파하게 되었다는 희생에 대한 예술적 미화도 아울러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인주에 대한 도덕적인 부담감을 사후 추모제 형식으로 배출하기도 한다. 「김제 벽골제 이야기」는 지금까지 인주로 희생된 처녀 ‘단야’의 추모제를 지내는 것으로 인주의 폭력성을 덮고 있다. 단야의 희생을 기리는 제의를 통해 설화 대중들은 집단적 윤리의식의 흠집을 메우고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현재 주로 김제 지역에서 전승되는 벽골제 관련 설화가 「단야의 전설」<sup>36)</sup>이나 「단야-벽골제, 사랑 이야기」<sup>37)</sup>처럼 대부분 ‘단야’ 중심의 서사라는 점이다. 「김제 벽골제 이야기」를 읽어보면 ‘월내’를 초점화하여 이야기 서사를 진행시킬 만한 흥미 요소가 다분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의 추모의식은 죽은 자, 희생된 자를 향해 있는 것이다.

그밖에도 인주설화 곳곳에는 인주의 폭력성을 회피할 만한 서사를 곳곳에 포진해 놓았다. 인주의 방법을 알려주는 예지적 존재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설화적인 회피 방법이다. 인주라는 참혹한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은 ‘우리들(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의식으로, 책임감에서 한발 물러설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예언자인 중의 입을 통해 직접 ‘중을 잡아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중을 희생시킨 것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사후적 변명이다.

그런데 인신희생설화는 마을 공동체나 종교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전승집단의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어떤 경우든 희생

36) 「단야의 설화」(디지털김제문화대전 <http://gimje.grandculture.net/>)

37) 김제시가 제작한 창작 뮤지컬로 2020년 10월에 유튜브를 통해 공연되고 있다.

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외피가 필요한데 집 건축형에서 보이는 어린아이의 희생은 집단이나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짐이 문제적이다. 건축형은 집단의 안녕과 번영이라는 공감을 확보하지 못한 권력자 개인을 위한 희생이라는 점에서 희생의 당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야기는 희생자 입장에서 권력자에 의해 가해지는 강제적인 폭력성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집 건축에 희생으로 인주를 쓰는 것에 대해 부모들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도망가거나 아이들이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저항한다. 이렇게 집 건축형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보호해 줄 만한 부모가 존재하는데 이는 르네 지라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기 아이들은 ‘희생당하지 않을 사회적 관계망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인주설화에 대한 실재성 여부는 단언키 어렵지만 살아 있는 사람, 특히 어린아이를 매장한다는 것은 현실맥락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데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종교적, 사회·문화적 의미를 찾아내기도 한다. 어린아이의 희생으로 제방이나 집, 종이 만들어졌다는 의식의 근저에는 신화적 사유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38)</sup> 축조물을 만들 때 어린아이를 매장하는 것은 그 터의 보이지 않는 신에게 희생을 바치는 의미와 함께 그 축조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상징적으로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염원일 것이다. 종 주조형에서는 좀 더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역시 어린아이의 생명력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상상력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방형에서 종이 인주가 되는 것은 종교적 영험함, 즉 부처의 힘을 제방에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로 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재난’을 키워드로 현실맥락에서 인주설화를 읽을 경우 이러한 희생은 철저히 타자적이고 폭력적이다. 마을 사람들은 인주의 방법에 대해 모두 찬성하면서 ‘나’나 ‘우리’가 아닌 ‘그들’에게서 인주가 될 사람을 구하고자 했다. 더구나 ‘그들’ 중에서 누군가를 인주의 희생자로 제안하기가 무섭게 마을 사람들은 조금의 망설임나 주저와 고민도 없이 ‘가래로 물어버리거나’ ‘즉시 물어버리는’ 행동을 한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38) 양상현, 앞의 논문, 71-78면.

전제 하에 모든 희생은 ‘그들’의 몫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희생은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당위적 목적 앞에서 반박이 불가능하게 하면서 그 희생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공동체를 위한 ‘고귀한 희생’으로 미화한다.

이러한 희생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든 한 개인을 위한 것이든, ‘어떤 사람(공동체)의 이익은 다른 사람(공동체)의 생활(생명, 건강, 재산, 일상, 존엄, 희망 등)을 희생시켜 산출되고 유지되는 거대한 희생 시스템을 보여준다.’<sup>39)</sup> 제방 축조형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더 이상 제방 붕괴로 인한 물난리가 일어나지 않음으로써 마을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다. 종주조형은 부처님의 뜻으로 인주를 미화하여 종교적 믿음의 완성과 공동체 세상에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소리로 미화하고 있다. 인간의 희생과 죽음이 종이나 건축물, 제방 등 새로운 창조의 바탕이 되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안전은 말할 것도 없이 더할 수 없는 예술적인 아름다움까지 전파할 수 있다는 희생에 대한 찬미이다. 이는 사후 희생의 가치를 찬미하는 일종의 희생 논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인주로 희생된 이들의 부당한 죽음은 마지막까지 은폐되지 못하고 아이의 울음소리로 형상화된다. 제방의 수문 아래로 흐르는 물소리에서는 ‘아이가 엄마를 찾으며 우는 소리’가 들리고(「벼락 맞은 아버지」), 「에밀레 중」 설화에서는 종을 칠 때마다 ‘에밀레’하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아이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희생 시스템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설화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 5. 맺음말

본고는 세 유형의 인주 설화 속에 내재된 ‘재난’ 모티프를 찾아보고 이야

---

39) 다카하시테쓰야 지음, 한승동 옮김, 『희생의 시스템 후쿠시마 오키나와』, 돌베개, 2013, 37-38면.

기를 관통하는 재난 서사의 마스터플롯을 정리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설화적 상상력 속에 은폐되어 있는 희생의 타자성과 폭력성을 살펴보았다.

재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방 축조형은 홍수로 인한 자연재난이 바탕이 되지만 그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제방의 무너짐’ 같은 사회재난으로 변형되는 재난의 이중적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하나의 자연재난이 어떻게 사회재난으로 맞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인주 같은 폭력성을 배태하게 되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집 건축형은 애초부터 인간이 만든 폭력을 상상한 인적 재난에 대한 것이며 종 주조형은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지 않은 시대에 종교를 통해 국가적 재난을 해결하고자 한 사회재난에 대한 상상력의 일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상상력은 설화적으로 포진된다. 축조물이 계속 무너지는 것은 신이나 용 같은 어떤 알 수 없는 힘의 작용 때문이라는 인식,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써야 한다는 것, 희생양을 쓰도록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예지적·예언적 존재가 등장하는 것이 모두 설화적이다. 이는 재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신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있는 설화적 상상력의 장치들이다. 결국 인주설화는 자연적·인적·사회적 재난을 복합적으로 섞어 설화적으로 형상화한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런 설화적 상상력 속에는 희생 논리의 전형이 숨겨져 있다. 인주로 희생되는 모든 인물은 공동체의 내부인이 아니고 외지에서 온 스님이거나 처녀, 자기 결정권이 없는 어린아이들로, 공동체 내부의 어떤 사회적 관계도 갖지 못한 타자적 인물들에게만 적용되었다. 공동체의 이익이 타자들을 희생시켜 산출되고 유지되는 폭력적 ‘희생 시스템’인 것이다. 공동체 내부인들은 이러한 타자성과 폭력성을 은폐하기 위해 희생의 가치를 찬미하고, 때로는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며 희생을 강제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도 한다. 어떤 공동체든 재난 상황을 공동체 내부의 ‘우리들’이 함께 책임지고 해결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거나 희생을 강제하는 것, 영웅적인 찬미를 동원하여 희생을 부추기는 것은 대단히 폭력적인 행태이다.

본고는 재난 서사 분석을 통해 공동체의 안녕이라는 미명 아래 혹시 우리도 희생의 타자성과 폭력성을 은폐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와 우리의 안전이 누군가의 위협을 대가로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작금의 ‘재난 현실’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재난에 대한 과거인들의 인식과 그 대응 양상을 살펴보고 ‘코로나 19’ 같은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라는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감염자와 비감염자로 이분화하여 일부에서는 감염자를 혐오하고 배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혐오와 배제를 전제한 이분화에는 이미 커다란 타자성과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 더구나 감염병의 책임을 어느 한 개인이나 소수 집단으로 돌려 특정 인종이나 소수자를 혐오하게 하는 것 역시 인주설화에서 보이는 거대한 희생 시스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재난’ 모티프를 통해 기존 연구성과와 전혀 다른 새로운 결과를 도출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무관심했던 ‘재난’ 화소에 주목하여 인주설화를 바라보는 또 다른 서사의 틀을 탐색하고 설화를 좀 더 풍성하게 읽어낼 가능성을 엿보았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그러나 ‘집 건축형’ 같은 인주설화에서 중요한 화소로 작용하고 있는 재난과 ‘소문’, 재난과 ‘불안’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재난은 항상 소문과 결탁하게 되는데 소문이 어떻게 퍼져나가서 어떻게 불안의 망탈리테(mentalites)와 결탁하는지 살펴보는 일도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재난’을 키워드로 ‘재난과 소문’, ‘재난과 불안’ 등의 관계망을 그려나가는 작업은 추후 과제로 남겨놓는다.

## 참 고 문 헌

- 강형선, 「인신희생 설화의 양상과 기독교적 의미」, 강릉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권혁준, 「한국의 설화와 동화에 제시된 아동희생의 양상과 문학 교육적 함의」,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6, 837-857면.
- 김성일, 「고위험사회가 초래한 한국형 재난의 발생과 기원」, 『문학/과학』 72집, 문학과학사, 2012.
- 김영호, 「'항해형' 인신희설화 연구」, 『어문학』 129집, 한국어문학회, 2015, 115-145면.
- 김화경, 「전이와 수용: 人柱說話의 研究」, 『동방문학비교연구총서』 1, 한국동방문학비교연구회, 1985, 309-324면.
- 다카하시테쓰야 지음, 한승동 옮김, 『희생의 시스템 후쿠시마 오키나와』, 돌베개, 2013.
- 디지털김제문화대전 <http://gimje.grandculture.net/> 「단야의 설화」
- 르네지라르 지음, 김진식·박무호 옮김,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1993.
- 문강형준, 「왜 '재난'인가」, 『문학/과학』 72집, 문학과학사, 2012.
- 문화재연구소, 『구비전승자료』 전남·북편, 문화재관리국, 1987.
- 박종성, 「한국·동유럽 구비시가 비교연구의 한 측면-인신희희 주지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5집, 한국구비문학회, 2002, 387-427면.
- 손영란, 「인주설화의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01.
- 송창영, 『재난 안전 인문학』, 예문사, 2017.
- 심우장, 「설화 속 '종소리'에 대한 문학 치료학적 접근」, 『문학치료연구』 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7, 235-168면.
- 양상현, 「건축에 부가된 신화적 상상력-인주설화와 창사 희생설화를 중심으로」, 『동양예술』 9호, 한국동양예술학회, 2004, 48-89면.
- H.포터 애벗 지음, 우찬제 외 옮김,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 이영수, 「한국설화에 나타난 인신희희의 유형과 의미」, 『한국학연구』 13집, 인

- 하대 한국학연구소, 2004, 81-118면.
- 이정재, 「희생제의설화의 원형성 연구-인신공희설화 중심-」, 『구비문학연구』 28집, 한국구비문학회, 2009, 133-156면.
- 이지영, 「에밀레종 전설과 그 소설적 변용 연구」, 『관악어문연구』 16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1, 191-213면.
- 일연 지음, 이민수 옮김,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1999.
- 장덕순, 『한국 설화 문학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78.
- 정재호, 「기후재난영화에 나타난 홍수설화로서의 성격과 문화적 함의」, 『Journal of Korean Culture』 46, 2019,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67-293면.
- 최래옥, 『한국구비문학대계』 5-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703-704면.
- 최상수, 『한국 민간 전설집』, 통문관, 1984.
- 최상수, 『한국 민족 전설의 연구』, 성문각, 1988.
- 최운식, 『한국 설화 연구』, 집문당, 1991.
- 한국고전번역원db db.itkc.or.kr/ 『조선왕조실록』

【Abstract】

## The Imagination of Disaster Folk Tales and the Otherness of a Sacrifice System

- focusing on the Inju Folk Tale -

Kim, Youngmi

The Imagination of Disaster Folk Tales and the Otherness of a Sacrifice System - focusing on the Inju Folk Tale

The Inju folk tale is a story that continuous failing of the builing bells, houses and embarkments causes human sacrifice, and finally succeeds to finish them. This study focuses on 'the disaster narrative' in the Inju folk tale and examines its imagination and the meaning of the sacrifice.

The Inju folk tale includes the narrative about building embarkments, house and bell. Disaster elements are arranged in the each narrative: clearly in the embarkments narrative, changeably in the house narrative and connotatively in the bell narrative. Viewed in the disaster light, the narrative of building embarkments is about a imaginative disaster caused by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 and its solution, the narrative of building houses is about the violence made by humans and the narrative of building bells is a imaginary story about overcoming a national disaster through religions in the era of unity of the church and state.

The Inju folk tale is a series of stories or tales mixed natural, human, and social disasters together. Followings are typical imaginative strategies: continuing collapsing structures was thought to be the inexplicable force actions such as gods or dragons, sacrifices is needed to prevent them, and a prophetic being appears and advises to use a sacrifice. These are means to understand the cause and solution of a

disaster in relationship between gods and humans.

The stereotypes of sacrifice are hidden in the imaginary folk tales. All people sacrificed in the Inju folk tale are not insiders in the community but others such a monk, a virgin or children who have no the right of self-decision and any social relationship. 'Sacrifice system' makes it possible for people in the community for their benefits and the maintenance of the system. They praise the sacrifice to conceal their violence and sometimes compel such a sacrifice by the name of gods.

**Keyword** : inju folk tale, building embarkment, building houses, building bells. disaster, narrative imagination, sacrifice system, otherness, violence, concealment

이 논문은 2020년 10월 16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11월 1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20년 11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